

## 新年辭

계미년을 맞아 여러 가지로 경영환경이 어려우시더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대처하시어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은 그 어느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1년말부터 불거진 주유소내 충전소 병설문제가 4월까지 계속되었고, 지난 7월에는 LPG세제개편에 따라 두 번째로 부탄에 대한 특소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공정위의 LPG업계 조사, LPG품질검사 실시, 용기충전소 저장탱크 완화, 경유승용차 허용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협회와 LPG수입사의 노력으로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조정하고,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용기재검사 기한의 연장 등 업계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저공해차의 균형보급방안 및 차량연료가격 적정비율 연구 등의 용역수행, 지속적인 중소형 LPG엔진의 연구개발 등 LPG차량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프로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 협회내 공식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초부터 자동차제작사의 요구로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승용차가 허용될 경우 우리 LPG차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너무도 절박한 현실앞에서 그동안 협회는 산자부·환경부·재경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업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 LPG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현안문제와 LPG충전사업의 발전을 위해 저희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가는 2003년이 되길 바랍니다.



2003. 2.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남 석 우